

	한국사	Ⅲ.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33차시 : 1930's 독립운동	학번	
	임종일 T		이름	

★1930's 초반 독립운동 in 만주 [★한중연합작전]

배경) 1931, 만주사변 이후, 1932, 일본, 만주국 수립

→ 중국 내 반일감정 고조

3부통합 운동

→ 북만주 : 한국독립당(군) - 지청천 : 쌍성보, 대전자령 전투
with 중국 (①)

→ 남만주 : 조선혁명당(군) - 양세봉 : 흥경성, 영릉가 전투
with 중국 (②)

1931, 일본의 만주사변 이후,
독립군의 활동이 점점 어려워짐
→ 중국 관내로 이동하여 활동

★사회주의자들의 활동 in 만주, 1930's

; 중국 공산당 내에서 민족과 노선에 관계없이 반일통일전선을
만들어야 한다는 주장

→ '동북항일연군' 조직 - 보천보전투

; 한인 유격대는 함경도 일대에서 조국광복회를 조직
이후, 소련으로 이동해서 활동

★민족혁명당 / 조선의용대

중국 관내로 이동한 독립군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노력.

-1935, 난징, (③) 창당

: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 대부분을 합친

중국 관내 최대규모의 민족 통일 전선 정당

but, 김구 등은 임시정부 약화를 우려하여 참여하지 않음.

&의열단 계열이 주도권을 잡자

지청천, 조소앙 등 민족주의 세력 일부 이탈

민족혁명당은, (④)이 발발하자 다른단체를 통합하여

(⑤)을 결성

(⑤)은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

(⑥)를 창설

-정보수집, 포로심문, 후방교란 등의 활동

but 중국 국민당 정부가 항일투쟁에 소극적인 모습

-> 화북으로 이동 ->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결성

-호가장전투에서 큰 성과